

# 노계와 계분 문제 해결, 농가가 적극 나서야...

- 산란 노계 처리 지금 조성 움직임 -

◇ 취재 / 홍보팀



▲ 정광면 지부장은 원활한 노계 처리를 위해서 별도 기금 조성 주장

면)를 지난 8일 방문하였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된 불황으로 회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회원간 따뜻한 인사말과 내년 사업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천채란지부 정광면 지부장, 이덕선 총무 등 30여명의 채란농가와 내빈으로 정인혁 시의원, 김상원 축산계장하고 본회에서 김용화 부장이 참석하여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올해 가장 큰 고민거리로 계분 판매 문제를 거론하였다.

동지부 이덕선 총무는 계분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협, 이천시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천지역 양계농가들의 공동 계분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 별도의 계분 처리장을 신축하는 것은 비용 부문과 정책상 현실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날 참석한 이천시 이기춘 축산과장은 채란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모색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상원 축산계장

**수** 당 1원 걷기 운동, 계란소비 운동 전개 등 채란업 발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지부중 하나인 이천채란지부(지부장 정광

이천채관지부



▲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채관농가들은 계분과 노계처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고 거론하였다.



▲ 내빈으로 참석한 이천시 정인혁 시의원, 이기춘 이천시 축산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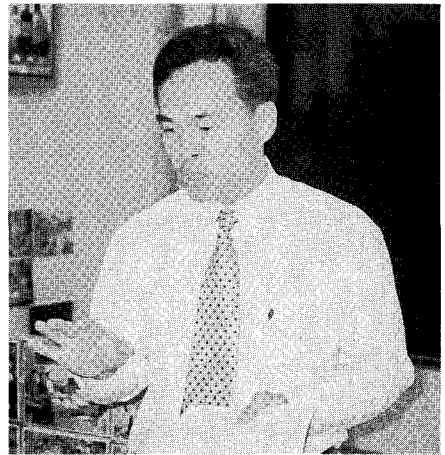
은 계분처리 문제와 농가별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도 있었다.

한편 참석한 회원들은 2003년은 너무 힘든 한해였다며 2004년 업계 전망과 주요 사안에 대하여 질문이 이어졌다.

김용화 대한양계협회 부장은 내년에는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직불제, FTA 타결, 질병 발생 등으로 사업 변화가 예상되며,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가들의 역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 지부 회원들은 계분 처리와 더불어 해결책이 없는 노계 출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법 모색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정광면 지부장은 계분 문제는 당장 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지만 본회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계란 수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노계 도태 사업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므로 기금 모금 계획과 사업 추진은 더 많은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여 이천지역이라도 기금을 모아 노계 출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노계 처리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차원에서 사료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 이천시 김상원 축산계장은 계분처리 문제는 이천 축산과가 적극 도울 것이라 입장 표명